



전주대 다른옴, 베트남 박람회서 유통 등 협력 성과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다른옴이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MEGA US EXPO 2025에서 유통·기술 협력 성과를 거뒀다.

20일 전주대에 따르면 다른옴은 이번 행사에서 베트남 식음료 전문 유통기업인 'INTERNATIONAL FOOD & BEVERAGE'와 전략적 협약을 맺고 현지 유통망 확대와 판매 전략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해 주류 유통회사 키엣 부음과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며 베트남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특히 국내 기업과 기술개발 영역 2건을 수주하며 기술력 기반 사업 확대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전통주 '하루주'는 IWSC(International Wine & Spirit Competition)에서 연이어 브론즈상을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다른옴은 농업회사법인 김지음 대표(전주대 농식품경영학과 교수)는 "MEGA US EXPO 2025 참여를 통해 현지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장을 동시에 이뤘다"며 "이번 협약과 기술개발 계약은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김상진 대표는 "최근 3년간 MEGA US EXPO 참여가 전북특구 연구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김제경찰, 범죄예방환경설계로 안전한 귀갓길 조성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는 여성과 청소년이 야간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귀갓길 캠페인(CPTED)' 사업을 추진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김제사회복지관에서 시행 중인 사랑의 열매 기부금을 활용하여 김제시 만경 소재 여성안심귀갓길 일대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경찰은 해당 구간에 로고화터 5개, 큐브형 안내판 6개, 필름형 안내판 7개, 솔라인식등 25개, 전신주 램프형 안내판 1개를 설치하여 어두운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한눈에 안심귀갓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설치 사업은 단순한 시설물 보강을 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안전 환경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성과 청소년 등 실제 귀갓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범죄 기회 자체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까지 높였다.

박승준 김제경찰서장은 "이번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은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김제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최재벽 남원소방서 구급지도 의사 선임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20일, 동부권역 응급의료 구급서비스를 강화 하고, 119구급대원 전문성 확보 지원을 위해 남원의료원 응급의학과 최재벽 과장을 남원소방서 구급지도 의사로 선임하는 위촉장을 전달했다.

최재벽 과장은 △구급대원 교육 훈련 △구급활동 품질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장비 및 응급처치 약품 등에 대한 교육 자료 △119구급대원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 및 법률적 문제 대한 의학적평가 및 자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은 "남원소방서와 남원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간의 협업은 필수이며, 구급대원과 지도의사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줄리하프 코리아 호남 앙상블’ 활약 빛나

전북특별자치도 중심으로 활동… 2021년 ‘백제문화제 대상’ 영예로운 수상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따뜻한 하프 선율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줄리하프 코리아 호남 앙상블’의 활약이 빛나고 있다.

작은 하프인 줄리하프가 선사하는 맑고 풍성한 소리로 대중과 소통하며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줄리하프 코리아 호남 앙상블은 그 시작부터 남달라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정도로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다.

2021년 ‘백제문화제 대상’이라는 영예로운 수상을 시작으로 이들의 연주는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연주를 넘어 삶의 한 조각을 담아내는 듯한



이들의 음악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2023년에는 MBC ‘인생나룻’에 출연해 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고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 초청 연주’를 통해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대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예술무대 연주’를 꾸준히 이어가며 꿈나무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제1회 줄리하프 호남 정기연주회’를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앙상블의 저력을 보여줬고, ‘현대음악콩쿨 대상’ 수상이라는 패거리를 이루며 음악적 실력과 예술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권희성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서 빛난 전북자치도-가고시마현 우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가고시마현 청소년 예술단이 ‘전주세계소리축제’ 초청 공연 및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전북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전주세계소리축제 폐막식 공연에서 심기체의 정신, 여우 시집가는 시간 등 40여분 간 무대를 선보이며, 양 지역이 소리를 통해 하나 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청 방문, 익산 고등학교와의 문화예술 교류,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극악관현악단과의 합동 연주 등 다양한 교류 활동과 문화체험 일정을 통해 한일 청소년 교류가 한층 강화됐다.

이번 방문으로 양 지역 청소년들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북의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며, 우호와 협력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고 돈독한 우정을 나눴다.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청소년 예술단 교류는 전주세계소리축제라는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북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글로벌 경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밝혔다.

한편 전북도-가고시마현 교류는 1989년 우호협약 체결 이후 행정편이나 청소년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두 지역 간 우호와 협력을 상징하는 대표적 교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환경청, 새만금호 수질오염사고 대비 합동 방제훈련 실시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 지난 19일, 새만금호 육곡승수로(군산시 하계마을 앞)에서 수질오염사고 대비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제훈련은 2025년도 정부 지정연습 훈련의 일환으로 전북지방환경청(주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군산소방서,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환경공단, 남양토건(주), 엔이티(주)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시에 군산공항으로 이동 중이던 유류 운반차량이 전복되어 유류 약 3,000리터가 수면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수심이 낮은 지역에 사고 발생시, 중장비 진입이 곤란한 상황에서 고무보트 등 소형 선박을 활용해, 수질오염사고에 얼마나 신속·정확히 대처하며, 관계기관간 협력·대응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훈련과정은 사고발생에서 수습까지의 과정을 상황보고 및 전파, 현장 초동조치, 현장출동 및 사고대응, 후속조치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먼저 △상황보고 및 전파 단계에서는 사고발생 직후 환경부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현장상황을 보고·전파하고, △현장 초동조치 단계에서는 수계유입 차단 방제둑 설치, 1차 오일펜스 설치, 사고자 응급구조 및 화재진압을 진행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 120 민원봉사대 이동빨래방 하반기 운영

남원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에 직접 찾아가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120민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 이동빨래방’을 20일부터 산내면 삼화마을, 부운마을에서 하반기 운영을 재개했다.

남원시 120민원봉사대는 연 150회(300개 마을) 일정을 추진하며, 해당일 지정된 마을을 방문해 전기·가스·수도·보일러·농기계 점검 및 수리, 이동빨래방, 청소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봉사로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불편사항이나 취약계층 세대의 일상생활 불편으로 120민원봉사대의 도움이 필요한 때는 대표번호(☎120)로 연락하면 된다.

상반기에는 총 80회(180개 마을) 3,052건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의 날도 2회 추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본격 운영

남원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8월 20일 산내면 삼화마을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실은 120민원 봉사대와 협력해 운영되며, 월 2회로 총 10회에 걸쳐 마을회관, 경로당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해 취약계층 발굴과 통합사례 관리 상담을 강화한다.

상담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주거·의료·교육지원 △노인·장애인 복지 △통합사례관리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민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상담실 운영을 통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개입하는 현장 중심 복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기자

전주시 조촌동 지사협, 취약계층에 밀반찬 전달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홍식)는 20일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15가구에 밀반찬을 전달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5찬의 반찬을 직접 전달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불편 사항이 있는지 세심히 살폈다.

밀반찬 지원 사업은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된 2017년도 이후부터 동 특화사업으로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구에 매월 밀반찬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생활에 기여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유홍식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거동불편으로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애 조촌동장은 “앞으로도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함께 사는 행복 동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수해복구성금 전달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회장 장성태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했다.

전주시협의회는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 200만원을 중앙회에 기부하여 전국 수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지원했으며, 아울러 전북 도민을 돕기 위해 순창군에도 25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장성태 회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과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은 나눔과 연대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는 평소에도 봉사와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성금 전달을 계기로 재난 극복과 상생의 가치를 다시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